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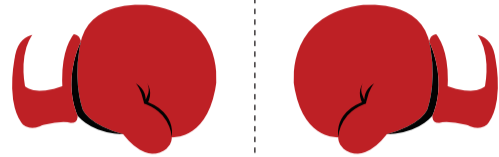
코스피	2270.20 (-36.87)	코스닥	781.38 (-8.87)
금리 (미국 3년)	2.11 (-0.01)	환율 (원/달러)	1126.10 (+5.50) (2일)



[정중동 글로벌 경영]
유럽 건너간 JY
AI·전장 관련
깜짝 M&A 나오나
03

폭염보다 뜨거운 '카드 수수료' 갈등

“더 내려라”



“또 내리라고?”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에 집회 열고 인하협상 요구 수수료율 일방통보 '부당'

편의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거리걸리다 나섰다.

경기 침체와 우후죽순 생기는 경쟁업체 출현으로 매출은 줄고, 인건비 등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사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인하협상'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들과만 수수료를 협상하고 정작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배제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떠안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집회 참석자는 "카드수수료는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수수료율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어 불공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하다"면서 "게다가 카드사들은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지만 신용카드 유지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여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은 대형마트 등은 마케팅비 지원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 정도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들에 비해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0.8%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 적용)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적용대상을 늘렸다.

벤 수수료 방식도 정액제이던 것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바꾼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기존 대책으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적이다.

앞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6·13지방선거 당시 각 당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전용벤 또는 공공벤 지정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매출액 구분 없이 0.3% 인하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카드업계

2007년부터 9차례나 내려 연간 1조원 이상 인하 효과

추가 인하 땀 수익 악화 마케팅비 줄여 소비자 피해



카드수수료 인하협상에 카드사들의 불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 이어 자영업자들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카드사의 불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살림살이를 나이지게 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카드수수료 인하만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카드수수료율을 9차례나 인하했다. 여신금융협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뀔 수 있어 해마다 내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일반가맹점은 2% 안팎, 매출이 3억~5억원인 중소기업 1.3%,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0.8%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담당자는 "지금까지 수 차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또 다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카드업계로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벤(VAN)수수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카드사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카드사의 표준수수료율은 일

반편의점 2.3%,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2%이지만, 편의점의 경우 건마다 이뤄지는 중간 결제과정을 이달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는 정률제로 바꾸면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벤사에 대한 수수료 방식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계속해서 수수료율이 인하됐는데 별다른 대안없이 수수료율을 낮춰 악화된 카드사의 경영난은 어디까지 하소연 해야 하나"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의 수익악화는 되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기세다. 당국에서 카드사 불만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연회비 인상 및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카드업계가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익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마케팅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던 부가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해 카드 사용자가 당연하게 느꼈던 혜택을조차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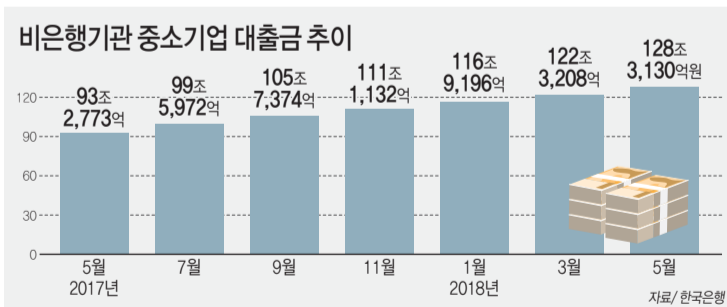
/나유리 기자 yul115@

은행 문턱 못 넘은 中소, 2금융서 128조 대출

비은행권 기업대출 중 89% 지난해 보다 약 37% 늘어

중소기업이 시중은행보다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제2금융권에 비해 미미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제2금융권 기업대출 금리가 은행권의 3배에 달해 기업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대출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금융 정책과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 대출이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대출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권을 의미한다.

올해 5월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대출금은 144조원을 돌파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비은행권) 기업대출금 잔액은 144조6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10조5690억원)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기업대출금잔액은 1월 134조원, 2월 136조원, 3월 138조원, 4월 141조원으로 나타나 꾸준히 2%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지난 5월 기업대출 잔액이 839조9851억으로, 작년 동기(792조)에 비해 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144조원이 넘는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128조3130억원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93조2773억원)에 비해 약 37% 증가한 것이다. (2면에 계속)

/유재희 기자 ryusoul91@

‘공모형 리츠’, 시중자금 빨아들인다

신한알파리츠 청약경쟁률 4.3대1... 리츠 역대 최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공모형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상품에 몰리고 있다.

적은 자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 7~8%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공모형 리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나섰고, 금융투자업계는 공모형 리츠 상품 발굴에 적극적이다.

◆신한, 리츠 공모펀드 흥행 '스타트'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완료된 신한알파리츠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4.3대 1로 역대 상장리츠 중 최고를 기록했다. 총 1140억원 모집에 4928억원

의 시중 자금이 쏠린 것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부동산 공모펀드가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했다.

신한알파리츠의 흥행비결은 우량한 기초자산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에 있다. 신한알파리츠의 기초 자산은 '판교알파돔 6-4'빌딩과 '용산더프라임타워'(부동산관련 증권 32.9%)다. 판교알파돔시티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올 4월 준공됐음에도 이미 오피스 기준 임대계약을 100% 완료한 핵심 자산이다. 임차인과 5~10년의 장기 계약 구조로 임대료 인상률은 연 2.5%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6%, 10년간 7%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장되는 공모 상품인 만큼 추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덩이로 얻을 수 있다.

연말에는 올해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히는 '홈플러스 리츠' 상장이 기다리고 있다. 홈플러스

가 보유한 매장 44곳을 매입해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매장별로 최소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10년 평균 7.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 공모금액 2조원, 자산규모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리츠상품으로 상장 성공할 경우 국내 최초로 조 단위의 초대형 리츠가 탄생하게 된다.

◆국토부 "서민 투자기회 확대, 공모형 리츠 장려"

한국리츠협회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리츠는 총 198건으로 같은 기간 공모리츠 총 6개(상장 5개·비상장 1개)로 사모 리츠 비중이 전체 리츠의 97% 수준이다. 시장 자체가 사모·기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모형은 모집 단위도 크고 공시 의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모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